

관현악 활동이 아동의 정서지능(E.Q)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Orchestral Music Activity on the Emotional  
Quotient of Children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경 표

# 관현악 활동이 아동의 정서지능(E.Q)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승 일

위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474 2007-04-09

음악교육전공

김 경 표

김경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일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1. 관현악 활동	
1). 관현악이란 .....	2
2). 학교내 관현악 활동 .....	3
3). 관현악 편성도.....	4
2. 정서지능(감성지수)	
1). 정서지능(감성지수)의 의미 .....	8
2). 정서지능 개념. ....	9
3).정서 지능의 생물학적 기초 .....	11
4).음악과 정서 지능 .....	17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9
2. 연구도구 .....	20
3. 연구절차 .....	22
4. 자료 처리 .....	23
IV.결과 분석	
1. 결과 분석.....	24

**V. 결론 및 제언**

1. 결론.....27  
2. 제언.....28

**참고 문헌**.....29

**부록. EQ 검사지** .....30

## ABSTRACT

Effects of Orchestral Music Activity on the Emotional Quotient of Children

kyung-pyo kim

Advisor: Prof. Seung-il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effects of orchestral music activity on the emotional quotient of children. Emotional quotient outruns reason in the important phase and induces behaviors unconsciously. So emotional quotient is impulse to evoke behaviors essentially and is also reflective behavior deeply rooted in man's brain in the process of evolution.

While a considerable part of IQ is determined natively, EQ can be improved through learning. Bu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re is appropriate period of learning for EQ learning. It is mostly completed through the period from infancy to high school graduation and its learning effects are grater as it is younger.

On the one hand, since musical activity makes children pleasant compared to any other activities, it can be the most important medium which can mitigate tension and conflict in children's minds and develop their mental health.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orchestral music activity on the emotional quotient of children and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their emotional development.

Research problem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I. What are the effects of orchestral music activity on emotional quotient of children?

I-1. Does orchestral music activity influence emotional recognition of children?

I-2. Does orchestral music activity influence emotional expression of children?

I-3. Does orchestral music activity influence emotional empathy of children?

I-4. Does orchestral music activity influence emotional control of children?

I-5. Does orchestral music activity influence emotional utilization of children?

It examines composition of orchestra and emotional quotient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It selects 85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3 classes who take part in orchestral music activity and it sets children attending orchestral music activity as experimental group and those who don't take part in it as comparative group.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perimental group conducting orchestral music activit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motional quotient than comparative group who don't perform i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music education through orchestral concert has affirmative influence on improving children's emotional quotient. Therefore, if orchestral music activity is conducted actively in the field of elementary education, it can make affirmative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their emotional quotient.

## I. 서론

기악 연주는 연주를 통해 악곡이 지니고 있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느끼고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작곡자의 의도를 알고 생각하는 능력과 음악적 인상과 악곡에 대한 습득을 통하여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예술이다.

음악은 기분을 변화시키고, 감정적 변화를 수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 관현악곡을 연주하면서 곡의 느낌을 인식하고 곡의 표현을 습득하므로 타인의 감정과 말, 얼굴 표정, 몸짓 등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음악과 정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아동기 때의 음악적 경험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동기 때 음악을 들으면 안정감을 갖고 자기의 느낌,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므로 음악의 다양한 활동 중 관현악 활동은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작곡자의 의도를 유추하는 재 창조적 관점을 갖고 있어서 어린시기에 적용 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음악 교육은 가창지도 및 개인악기의 교육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현악 합주의 초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수업 형태는 아주 미비한 현실이다.

21세기는 컴퓨터, 통신, 과학의 발달로 인간성이 더욱 황폐해진 현대사회에서 정서발달은 매우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지능 향상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아동기에 관현악 활동이 아동기 정서지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관현악 활동

#### 1). 관현악이란

관현악은 음악표현 수단 중의 하나이다. 손뼉을 친다든지, 막대기를 두들긴다든지 하는 소박한 타악기적 표현에서부터 심미적인 숙련된 관현악 연주에 이르기까지 관현악은 가창과는 다른 음악표현의 기쁨을 가져다준다.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노래에 맞추어 캐스터네츠, 탬버린, 작은 북, 트라이앵글 등의 타악기의 리듬치기를 통해 음악적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관현악의 음악적 표현 세계에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학생들은 관현악기 연주에 의해 변화 있고 매우 다양한 음악 표현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

학생은 관현악기가 가지는 고유의 음색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며, 현악기의 긴 프레이즈, 관악기의 크레센도, 타악기의 리듬등과 같은 악기의 표현 영역을 통해 성악에서는 맛 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의 세계를 찾아내게 된다. 또한 앙상블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연주하는 관현악기의 성부가 앙상블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 가를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발견이며, 미적 가치의 범주를 넓혀 나가게 한다.

관현악은 감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유기적이다. 학생은 감상을 통해서 악기 연주 그 자체를 동경하게 되고 직접적인 악기의 연주 경험을 통해 관현악 음악의 감상을 깊이 있게 하게 된다. 때로는 학습 전체를 끌어 올려 생기를 불어 넣기도 한다.<sup>1)</sup>

---

1) 이용일.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현대 음악 출판사, 1989

## 2). 학교 내 관현악 활동

교육부 고시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는 가창과 리듬 및 국악, 리코더 등의 교육 형태로 되어있다. 광주 시내 초등학교 내에서 특기 적성 교육을 하는 학교는 많아졌지만 관현악 합주를 통한 교육을 하는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광주 시내 학교 중 S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S초등학교의 관현악 수업은 매주 1회씩 실시하며, 1학기 중 호남예술제 대회 기간 전에는 2달 전부터 주3회를 실시한다.

2학기 때는 종합 예술제와 교내에서 실시하는 연주 홀을 대관하여 음악회를 실시한다. 이경우도 매주 1회가 아닌 2달 전에 주2~3회를 관현악 합주를 실시한다.

## 2). 관현악 편성도

### (1) 관현악의 4부 편성

관현악기의 편성은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파트마다 4성부로 나누는데 그 기본 편성은 대개 다음<표 I-1>과 같다.

<표 I-1> 관현악 4부 편성표

성부 \ 악기파트	목관	금관	현악
소프라노(Soprano)성부	플루트(Fl.)	제1 트럼펫(Trp. I)	제1 바이올린(Vln. I)
알토(Alto) 성부	오보에(Ob.)	제2 트럼펫(Trp. II)	제2 바이올린(Vln. II)
테너(Tenor) 성부	클라리넷(Cl.)	제2 호른(Hr.)	비올라(Vla.)
베이스(Bass) 성부	바순(Bssn.)	트롬본(Trp.)	첼로(Vc.)

위의 편성에서 소프라노와 베이스 성부를 보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목관에서는 피콜로(Picc.)가 플루트를, 그리고 더블 바순이 바순을 보강한다.  
 둘째, 금관에서는 베이스 트롬본, 또는 튜바가 트롬본을 보강한다.  
 셋째, 현악에서는 더블 베이스가 첼로를 보강한다.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편성의 도표를 볼 수 있는데, 보충된 악기가 같은 종류의 악기로 편성되기 때문에 음색이 단조롭다.

<표 I -2>관현악 보강 편성표

성부 \ 악기파트	목관	금관	현악
소프라노(Soprano)성부	피콜로(Picc.) 플루트(Fl.)	트럼펫 I (Trp. I)	바이올린 I (Vln. I)
알토(Alto) 성부	오보에(Ob.)	트럼펫 II (Trp. II)	바이올린 II (Vln. II)
테너(Tenor) 성부	클라리넷(Cl.)	호른2	비올라(Vla.)
베이스(Bass) 성부	바순(Bssn.) 더블바순(D.Bssn)	트롬본(Trp.) 베이스 트롬본 (B.Trp) 튜바(Tuba)	첼로(Vc.) 더블 베이스(D.B.)

다음<표 I-3>은 각 파트를 보충한 편성의 예로서 잉글리시 호른(E.H)을 사용하는 대신 오보에(Ob.)가 소프라노 파트를 담당하고, 베이스 클라리넷을 사용하는 대신 클라리넷이 각각 알토와 테너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호른이 각 알토와 테너 파트를 담당하고 트롬본(Trb.)도 알토와 테너를 담당한다. 이러한 편성은 다른 악기와 혼합한 편성으로서 음색이 다양하여 보다 표현이 다채롭다.<sup>2)</sup>

<표 I-3> 관현악 보강 편성표

성부 \ 악기파트	목관	금관	현악
소프라노(Soprano)성부	피콜로(Picc.) 플루트(Fl.) 오보에(Ob.)	트럼펫 I (Trp. I)	바이올린 I (Vln. I)
알토(Alto) 성부	클라리넷 I (Cl. I)	트럼펫 II (Trp. II) 호른 I III(Hr. I·III) 트롬본 I (Trp. I)	바이올린 II (Vln. II)
테너(Tenor) 성부	클라리넷 II (Cl. II)	호른 II·IV(Hr. II·IV) 트롬본 II (Trb. II)	비올라(Vla.)
베이스(Bass) 성부	베이스클라리넷 (B.Cl.) 바순(Bssn.) 더블바순(D.Bssn)	베이스트롬본(B.Trp) 튜바(Tuba)	첼로(Vc.) 더블 베이스(D.B.)

2) 김달성.박관우 악기편성법을 위한 관현악법 서울:세광음악, 1988, p18-9.

광주 S 초등학교의 학생들에 관현악 편성 및 인원 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바이올린Ⅰ : 12명  
바이올린Ⅱ : 12명  
바이올린Ⅲ : 11명  
첼로 : 13명  
더블베이스 : 3명  
클라리넷 : 7명  
플룻 : 9명  
오보에 : 2명  
바순 : 1명  
트럼펫 : 4명  
타악기 : 4명

각 악기의 파트별 편성도는 맞지 않으나 바이올린Ⅲ 가 비올라를 대신하고 편성에 없는 악기는 타악기로 대처하여서 2006년에는 헝가리 댄스 와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있다.

## 2. 정서지능

### 1). 정서지능의 의의

E.Q 즉 정서 지능(Emotional Quotient) 혹은 감성지수는 정서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Salovey & Mayer, 1990)으로 미국의 Daniel Goleman이 대중화 시켜 표현한 창작 용어이다. 지난 100여 년간 인간은 지능을 수치화 한 IQ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E.I(Emotional Intelligence) 보다는 E.Q(Emotional Quotient)로 개념화시킨 것이다.

기존의 IQ개념처럼 한정된 영역과 제한된 시간 내에 측정 수치화 하여 낙인찍은 것(Labeling)과는 달리, EQ는 인간의 무한하고 다양한 잠재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능(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학자 (Binet, 1905, Terman, 1916, Spearman, 1927, Wechsler, 1942)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져 왔다. 일반적인 지능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환경 속의 여러 사상들을 지각하고 인지하여 거기에 내포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가장 포괄적이며 자주 인용되는 지능의 정의는 바로 Wechsler의 정의인데, 그는 지능을 개인의 합목적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집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정의 내렸다. Wechsler의 이 같은 정의는 추상적, 언어적,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지능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지능이라고 생각되고 연구 되어온 광범위한 영역의 지능들을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결국 지능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포함하는 세트(Set)라 할 수 있다. 정서지능에서 말하는 지능은 일련의 정신 능력(ability)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 점은 곧 일반적인 지능의 의미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정서 지능에서 말하는 지능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능에서의 변별 점은 정서지능의 기제와 표현(manifesta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서지능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능력으로 정서성(Emotionality), 정서조절, 특수한 신경학적 기제이다(Mayer & Salovey 1990).<sup>3)</sup>

특수한 능력의 예로서, 정서적 유창성, 다양한 계획을 짜는 능력, 가능한 결과를 다양하게 예측하는 능력,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 자극에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기분조절능력, 감정의 지각변별능력 등을 들 수 있

3) Mayer J, p & Salovey & M. Dipaolo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1990.

다. 정서 조절이란 정서적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독특한 능력이 다. 이러한 조절능력은 정서에 대한 공감(empathy)과 개방성(openness)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정서 지능에 기본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한 신경학적 기제 정서 표현을 위한 해독능력과 관련된 특수한 뇌 부위의 존재를 말 한다<sup>4)</sup>

정서(emotion)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서는 정신 활동을 방해하는 반응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정서 지능에서 함의하고 있는 정서는 구조화된 반응(organized response)으로서 흔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며, 이때의 사건은 각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유인가를 지닌다.<sup>5)</sup>

## 2). 정서지능 개념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책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이다. 또한 1995년 10월 9일자 “Time”지에 “당신의 EQ는 어떠한가?”란 내용이 표지기사로 다루어지면서부터 “EQ”란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했다.

일찍이 1980년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Howard Gardner는 정서가 지적기능을 갖는다는 개념을 제안했다. Gardner(1983)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언어능력, 논리능력, 공간이해능력, 운동능력, 음악능력, 개인 간(interpersonal)능력과 개인 내(intrapersonal)능력과 같은 일곱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다 지능이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 요인들 가운데 개인 간 능력과 개인 내 능력을 합쳐 개인(personal)능력이라 불렀는데 이 능력들은 전통적인 I.Q검사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인으로 정서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 간 능력에는 남을 이끌어가는 지도성, 우정을 나누고 유지하는 인간관계능력,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 일하려 하는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가도 잘 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세일즈맨, 사업가, 정치인, 교사, 의사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개인 간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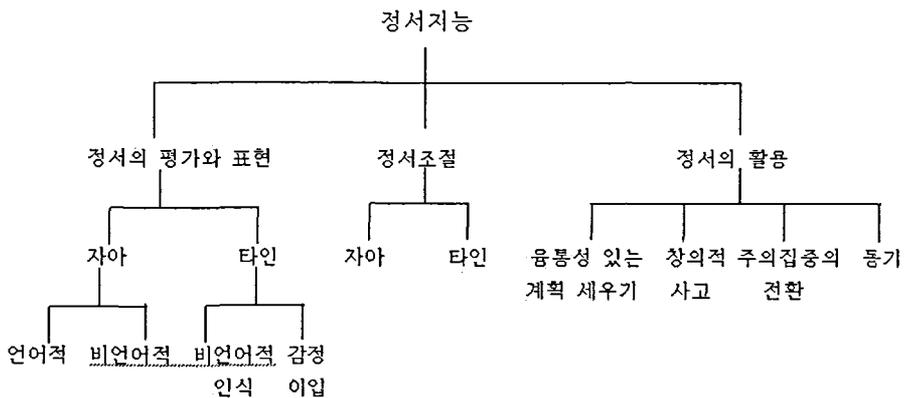
4) 락윤정, 정서 지능의 타당성과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5) Mayer J. & P. S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p245-7,1996.

“정서지능”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는 Peter Salovey와 John Mayer에 의해서이다. 그들은 정서지능을 크게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및 정서의 활용으로 3분하였으며 이 3대 요인 밑에 각각 몇몇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sup>6)</sup>

(그림1)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Salovey & Mayer 1990) <sup>7)</sup>

(그림1)정서지능의 구성 요소(Mayer & Salovey, 1990)



※ 출처-김현경, 이지은 편저, E.Q 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6) 김순자. 정서지능에 관한 고찰. 논문집.p114-15.

7) 김현경, 이지은 편저, EQ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다음세대p24.

### 3). 정서 지능의 생물학적 기초

정서가 인지와 연결되는 생물학적 기초는 복잡한 현상으로 현대의 신경생리학이나 의학에서 그 기제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촉진시켜야 할지를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기초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즉,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신경기능과 정보 처리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정서는 주요 생명에 도전을 받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경회로의 활성화로 일어난다.

원초적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변연계(limbic system)의 편도체(amygdala)는 정서적 마음의 중심이다. 정서에 인자가 또 인지에 정서가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LeDoux(1989)에 의해 시도되었다. LeDoux의 의하면 외부로부터 대뇌 피질로 입력되는 다양한 감각 정보는 편도체에 전달되며 편도체는 입력되는 정보들의 중요성(의미)을 판단하여 정서로 표현한다. 또 단순한 정보는 시상을 통하여 편도체에 전달된다.

편도체는 이렇게 복잡하고 단순한 정보들을 중요성에 따라 처리하여 정서를 일으킨다. LeDoux는 정서와 관련된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대뇌의 영역은 해마(hippocampus) 영역으로서 해마도 편도체처럼 입력되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지만 해마에 입력되는 감각정보는 편도체에 입력되는 것과는 달리 미리 감각 기관간의 통합이 이루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늦고 정보가 복잡하다고 제시하였다. 해마와 편도체의 연결로 인해 이 두 영역으로 입력된 정보가 동일한 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고, 입력된 감각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편도체의 평가는 해마에도 전달됨으로써 인지에 정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해마와 편도체는 하나의 팀으로 기능하는 것 같다. 해마는 맥락이나 비정서적인 세부 사항을 저장하고 편도체는 정서적 각인을 덧붙인다. 발달 상 해마는 늦게 성숙하므로 아마도 어린 아기의 기억이 회상되지 않는 것은 편도체에 기억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Greenberg & Snell, 1997)<sup>8)</sup>.

감정과 느낌을 관장하는 중요한 곳은 대뇌의 변연계뿐만 아니라 대뇌의 신피질(Neocortex), 특히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다. 정서두뇌의 이 부분은 상황을 다시 평가해 보고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통제실과 같은 작용을 한다. 정서가 작동하면 순간적으로 전두엽이 가능한 행동들을 분석하고 최선

8)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지능, 학술논문, p12,2004.

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편도체와 신피질은 위험을 알려 주는 조심성 많은 파수꾼과 신중히 행동을 선택하는 냉정한 전략가로서 서로 좋은 짝인 것 같다.

그러나 파수꾼은 과잉반응을 보이기 쉬워서 강력한 정서가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공포로 인해 우리는 말문이 닫히거나 미쳐 버릴 정도가 되기도 하며 화가 나면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 그런 때는,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통로가 신경정체를 일으켜 기억을 유지하는 전두엽의 작용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라고 말하곤 하는 것이다.

Goleman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성적인 마음은 연합 논리를 사용한다. 현실을 상징화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현실과 똑같이 인식하게 한다. 이성적인 마음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논리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감성적인 마음은 비슷하거나 뚜렷한 특성들을 서로 연관시킨다는 것이다. 이성적인 마음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감성적인 마음은 자신의 믿음을 절대적인 사실로 간주하거나 증거들을 반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흥분한 사람과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다. 이성이 설 자리가 없으며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감정이 혼자서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sup>9)</sup>

그러나 Salovey와 Mayer는 이러한 생리학적 설명만으로는 감성을 다루는 능력의 존재만이 입증될 뿐이며 체계적이고 조작적으로 정서지능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산만하게 이루어진 정서지능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수정된 정의를 나타낸 <표 II-10> 에서처럼 그들은 기본적인 감정 반응에 가까운 감정의 지각, 인식, 표현에서부터 좀 더 심리적으로 통합된 과정에 가까운 감정조절의 영역까지 4개의 부분으로 감성지능을 크게 나누고 있다. 각각의 단계에는 4가씩의 대표적인 능력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왼쪽에 있다. 나중에 발달하는 능력들은 오른쪽에 있다. 각각의 능력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적용된다.

---

9) Dianne Schilling 초등학생을 위한 정서지능 서울: 양서원 p19-20

<표 II-9> 감성지능의 구성요소와 내용

평가 와 표현	자아	언어적	정서는 언어에 의해서 평가되고 표현된다.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비언어적	정서적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은 비언어적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비언어적 신호(표정, 몸짓)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으로써 개인차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도 잘 알아차린다.
	타인	비언어적	타인의 불쾌한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든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능력은 안면표정을 통해서 나타난 정서를 해석하는 것으로 개인차를 알 수 있다.
		감정이입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조절	자아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은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타인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으로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히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부정적인 대화는 억제하는 능력	
활용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기분전환을 통해 좌절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으며 가능한 다양한 결과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사고	감정은 기억 속의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정보를 유목화 함으로써 창조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주의 집중	부정적인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의미를 두게 될 때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롭고 더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동기화	정서는 도전적인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기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 시켜서 어려운 장애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한다.	

※출처: Salovey & Mayer(1990)

<표 II-10> 수정된 감성지능의 모형

감성적, 지적 성숙을 증진시키는 감정의 조절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들에 대해 개방적일 수 있는 능력	감정의 유익성과 실용성에 따라 그 감정을 반사적으로 지속시키거나 그 감정에서 반사적으로 벗어나는 능력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가 얼마나 명확한지 전형적인지 영향력 있는지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능력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는 증진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 속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
감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 : 정서 지식의 활용			
감정들에 명칭을 부여하고, 명칭과 감정의 관계를 인지하는 능력	슬픔이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정서가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나,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쳐져 이루어진 경외감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이해하는 능력	분노에서 만족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분노에서 수줍음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인식하는 능력
감정의 사고 촉진			
정서는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고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서가 느낌과 관련된 판단과 기억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활용 가능한 사실이다.	정서적인 기분 변화는 개인의 관점을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촉진한다.	행복감이 들 때 귀납적인 추론과정과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것과 같이 정서적인 상태는 특정 문제의 접근을 차별적으로 촉진한다.
감정의 지각, 평가 및 표현			
자신의 신체적 상태, 감정, 및 생각에 내포된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언어, 소리, 모습 및 행동을 통해서 다른사람들이나 디자인, 예술작품 등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러한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	정확한 감정과 부정확한 감정을 변별해내고, 정직하게 느낌을 표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능력

※출처: Salovey & Mayer (1997)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이란 사회적 지능의 부분 집합이며 Gardner가 말한 바 인격지능의 일부라고 보았으며,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평가와 표현,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절,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서의 사용이라는 면에서 그 때까지 흩어져 있는 연구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였다.

이와 같은 Salovey와 Mayer의 제언을 정리하여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Goleman, 1995).

<표 II-11>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요소와 내용

구 성 요 소	내 용
자기인식 (Self-awareness)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감성지능의 초석이 된다.
자기조절 (Self-management)	자기조절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동기화 (Self-motivating)	어려움을 참아내어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만족지연과 낙관성 등을 말한다.
감정이입 (Empathy)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대인관계기술 (Social skill)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적절한 감성표현력을 말한다.

※출처: Gloeman, 1995.<sup>10)</sup>

10)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1995.

첫째,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의 핵심이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통찰과 이해에 필수적이다. 이런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절하게 이끌어 가며 개인적 결정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할 지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정서의 조절이란 자기 지각에 기초하여 자신의 느낌을 적절하게 전환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 흥분, 우울, 불안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돈 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만 부족한 사람은 늘 괴로운 느낌에 시달린다.

셋째, 자기 동기화란 자신의 감정을 생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렬시키는 능력이며 이런 능력은 주의집중, 동기부여, 자기정복, 창조에 필수적이다.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넷째, 다른 사람의 감정 인식 즉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기분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경험을 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사랑 기술"이다. 공감적인 사람은 돌보는 직업, 가르치는 일, 판매, 관리와 같은 일에 능력을 발휘한다.

다섯째, 관계 다루기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은 인기, 지도력, 대인관계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능력이다. 이런 기술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부드럽게 교류하는 사회적 스타이다.

#### 4). 음악과 정서 지능

음악은 유덕희(1983)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 활동으로 아름다운 음악은 정서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강한 감화력을 주는 요소가 있으므로 인간의 정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인간성을 완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1)</sup>

Ables(1980)와 Haack(1980)은 음악은 기분을 변화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감정의 경험을 촉발시키고, 타인과 감정적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감각적 행동을 종합, 조절, 변형시킬 수 있으며, 긍정적 정서 유발은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 연상, 기억, 회상, 긴장이완, 행동의 변화 등 긍정적 기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2)</sup>

예술은 우리들의 감각으로 향하는 측면과 정신, 또는 혼으로 향하는 측면, 이렇게 두 측면을 갖고 있다. 예술은 감각적 존재이고, 그 감각성은 예술의 생명 조건이다. 그러나 그 예술의 감각성은 단지 감각적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음악에서의 음이 단지 음향 현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화 된 음 현상인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술은 감각적인 것의 정신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은 정신적인 것의 감각화’ 인 동시에 ‘감각적인 것의 정신화’이며, 이중 어느 한쪽이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예술 이외에도 인간의 다른 여러 행위나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음악을 예술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한 지금 말하는 것은 음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음악 역시 감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이고, 그와 같은 존재로서 음악은 베토벤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정신생활과 감각 생활을 매개해 주는데, 다만 음악에서의 정신적인 면은 극히 불명료하고 애매하여 파악하기 힘들다. 그만큼 음악은 감각적인 면에 서있고, 그것이 정신적인 것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감각적 자극과 감동을 문제로 삼는다면 언어 예술 중에서는 시에 가장 가깝고, 그래서 음악은 시와 자연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서 음악을 시의 다음 자리에 둔다. 음악은 확실히 어떤 개념에 관계없이 순전히 감각을 통해서 말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시와는 달리 성찰

11) 유덕희,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개문사, 1983.

12) Ables, H. Responses to music. In D.A. Hodges(eds.),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Debuque L.A.:Kendai-Hunt.

할 만한 그 무엇을 뒤에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시보다도 훨씬 다양한 작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고, 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 이처럼 칸트는 음악을 감각적 매력, 즉 ‘쾌적함’이라는 점에서 우위에 두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악은 다른 여러 예술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음악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매력의 예술이다.<sup>13)</sup>

따라서 현대와 같이 여러 원인에 의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관현악 합주를 통한 정서지능 함양과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13) 김승일 역, 음악미학입문 서울: 삼호뮤직 p64-65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1) 연구대상 집단 선정

연구 대상 집단은 K시에 위치한 S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3개 반을 선정하여, 총 85명을 연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선정

선정된 초등학교 6학년 3개 반 중 관현악 활동을 한 아동을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비 활동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자 분포

집단구분	연령	인원수(명)
실험집단	13세	32
비교집단	13세	53
총 계		85

## 2. 연구도구

### 1). 정서지능 측정영역과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주식회사 대교의 정서지능 검사지(E.Q Test)로 검사를 하였다. 주식회사 대교에서 실시하는 EQ 검사는 1996년 3차에 걸친 예비검사와 1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검사이다. 주식회사 대교는 또한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정서지능 검사에 상당한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설문지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 요인별 문항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검사 영역별 문항 분포

영역	측정요소	문항 수	문항분포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5문항 타인의 정서인식 2문항	7	1, 2, 4, 5, 6, 7, 8번
정서표현	정서표현	6	3, 10, 11, 12, 17, 18번
감정이입	감정이입	7	9, 13, 14, 15, 16, 19, 20번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5문항 및 타인의 정서조절 5문항	10	21, 22, 25, 26, 27, 28, 31 32, 33, 34번
정서활용	정서활용	7	23, 24, 29, 30, 35, 36, 37번
계		37문항	

## 2) EQ 진단검사 실시상의 유의점

- ① 아동이 직접 읽으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 ②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을 들도록 하여,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도록 하였다.
- ③ 정서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5문항(6, 10, 11, 13, 14번)은 부정으로 물어보는 문항이어서 반응에 주의하도록 하였다.
- ④ 정서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2개의 선택사항 중에서 자신에게 더 가까운 번호에 답하도록 하였다.
- ⑤ 검사자의 학년과 이름, 그리고 성별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하였다.

### 3. 연구절차

#### 1) 검사

##### (1) 정서지능 검사

현재 4,5,6 학년 중 6학년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서 관현악 활동을 하는 실험 집단과 비 활동자인 비교집단의 정서지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초등학교 3개 반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 (2) 조사 일정

선정된 초등학교 6학년생 3개 반에 담임선생님께 전화상으로 방문을 알린 후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선생님과 학부모, 아동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의뢰하였다.

연구자와 1명의 정서지능 검사 자는 선정된 초등학교 6학년생 3개 반 85명의 아동을 각각 2006년 10월 11일에 정서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 관현악 활동을 하여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본 조사에서 나타난 정서지능 점수를 산출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를 위해 SPSS/PC+ 를 이용하였다.

## IV.결과 분석

### 1. 결과 분석

- <표IV-1> 집단에 따른 정서인식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비교집단	53	18.47	2.334	-3.045	0.003**
실험집단	32	19.72	1.442		

\*\* p<0.01

- 집단의 구분에 따라 정서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즉 유의(p값) 수준 p<.05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현악 합주 활동이 아동에 정서인식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표IV-2 > 집단에 따른 정서표현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비교집단	53	14.60	2.648	-0.594	0.554
실험집단	32	14.88	1.561		

- 집단의 구분에 따라 정서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즉 유의(p값) 수준 p<.05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로써 표본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IV-3> 집단에 따른 감정이입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비교집단	53	16.13	2.753	-5.772	0.000***
실험집단	32	19.66	2.683		

\*\*\*  $p < 0.001$

- 집단의 구분에 따라 감정이입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05$ ) 즉 유의(p값) 수준  $p < 0.05$ 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현악 합주 활동이 아동에 감정이입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표IV-4> 집단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비교집단	53	23.09	3.774	-6.577	0.000***
실험집단	32	28.41	3.310		

\*\*\*  $p < 0.001$

- 집단의 구분에 따라 정서조절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05$ ) 즉 유의(p값) 수준  $p < 0.05$ 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현악 합주 활동이 아동에 정서조절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IV-5> 집단에 따른 정서활용의 차이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비교집단	53	22.68	3.327	-7.161	0.000***
실험집단	32	26.72	1.871		

\*\*\* p<0.001

- 집단의 구분에 따라 정서활용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즉 유의(p값) 수준 p<.05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현악 합주 활동이 아동에 정서활용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표IV-6> 집단에 따른 정서지능검사의 차이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비교집단	53	94.98	9.044	-7.540	0.000***
실험집단	32	109.38	7.581		

\*\*\* p<0.001

- 집단의 구분에 따라 정서지능검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즉 유의(p값) 수준 p<.05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현악 합주 활동이 아동에 정서지능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아동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정서지능에 효과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정서인식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정서표현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정서표현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과 동질화 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 영역 발달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 사료된다. 집단에 따른 정서표현 조사의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감정이입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감정이입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정서조절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정서조절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서활용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정서활용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현악 합주 활동이 정서지능 중 정서활용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현악 합주 활동은 아동들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며 여러 영역 중에서도 정서인식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관현악 합주 음악교육은 아동들의 정서발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아동들은 관현악 합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됨으로써 결국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 2.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 표본 집단을 6학년을 대상으로 관현악 활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확대를 통해 각 학년에 따른 관현악 합주의 정서지능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의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다수의 집단에 실시할 경우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표집대상이 미성숙한 발달상태에 있다면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검사자와 대상 아동간의 일대일 질문을 통한 연구를 통하여 정서지능의 객관성의 문제를 최소화 하였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승일 역, 음악미학입문, 서울: 삼호뮤직.  
김달성, 박관우, 악기편성법을 위한 관현악법 서울: 세광음악, 1988.  
김현경, 이지은 편저, EQ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이용일,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현대 음악 출판사, 1989.  
이영자, 외4, 방과후 정서지능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0.  
유덕희,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개문사, 1983.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지능, 학술논문, p12, 2004.  
황의명, 박찬옥, 유아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1997.

- Ables, H. Responses to music. In D.A. Hodges(eds.),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Debuque L.A.: Kendal-Hunt.  
Dianne Schilling 초등학생을 위한 정서지능 서울: 양서원 p19-20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Mayer J. & P. S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 p245-7, 1996.  
Mayer J, p & Salovey & M. Dipaolo,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1990.

## ※ 학위논문

- 김순자, 정서지능에 관한 고찰. 논문집. 2004.  
곽윤정, 정서 지능의 타당성과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정희자, 발레교육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기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부록. EQ 검사지

1. 나는 조희 때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오늘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6.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7.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8.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9.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0.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실 때, 나도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1.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2.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 그 친구를 위로 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3.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4.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5. 어머니나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6.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는 것 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7.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8.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달려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9. 울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20. 육교나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21.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2.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그런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3.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는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② 나는 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24.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 친구 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는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엄마 친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25. 나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6.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7.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9.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선생님이 나만 야단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도 잘못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 ② 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밋고 화가 난다

30.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 ① 오늘 시험을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 ② 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된다.

31. 짝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2.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3. 어머니(아버지)가 화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4. 친구가 슬퍼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5.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 ①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 한다.
- ②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36.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험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나요?

- 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따진다.

3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덮고 졸려서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

- 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 한다.
- ② 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